

어명소 2차관, ‘자율차 상용화 속도 높일 제도개선 힘쓸 것’

-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 첫 행보로 상암 자율차 시범운영지구 찾아 소통 강화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 후 첫 행보로 12월 28일(수) 오후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지구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 서비스 실증현황을 점검하고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.

- 상암 자율차 시범운영지구는 「자율차법」(20 제정)에 따라 '20년말 첫 번째로 지정·운영 중인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 특례지구로,
 - 어 차관은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지구 운영 및 지구 내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 현황(4개사/8대)을 보고 받은 뒤,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여 新모빌리티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.

- 간담회에 참석한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묻고,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.

- 이에, 어 차관은 “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은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진흥하고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고심 의 소산이자 강력한 의지의 표현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일률적이고 경직된 규제를 유연한 규제로 탈바꿈시키고,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등 자유로운 실증 및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”이라고 의지를 표명하였다.

2022. 12. 28.

국토교통부 대변인